

정재호

최근 플라토에서의 전시를 비롯하여, 토탈미술관에서의 《신진기예》(2010) 전과 갤러리 비원에 설치된 정재호의 대형 벽면 작품은 회화, 시트지, 디지털 프린트 등이 총동원되어 도시의 기호들을 쇄도하게 함으로서 관객에게 강렬한 경험을 준다. 플라토의 전시처럼 공간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갤러리 비원의 전시처럼 개인적인 사건을 다루기도 한다. 그 무엇이든 공간공포증에서 비롯된 듯한 뻑뻑한 도상들과 그것들의 잠재적 이동성이 두드러진다. 작품의 공간이 도시에서 비롯된 다양한 도상들로 채워진다면, 시간은 기억과 무의식이라는 비선형적 경로를 따른다. 가령 작품 <First Accident>(2010)는 아주 어릴 때 겪었던 계단에서의 추락 사고를 디지털 프린트의 콜라주(collage)와 데콜라주(decollage)로 어지럽게 표현한다. 그것은 구체적 사건의 묘사가 아니라, 트라우마를 야기한 충격 그 자체를 표현한다. 벽화뿐 아니라, 유화로 그려진 작은 작품들 역시 추상과 구상의 경계가 소멸된다. 추상/구상은 미학적으로 꼭 대립 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차이에서 작가는 유희한다. 그의 대형 벽화나 캔버스 그림은 모두 주변 환경이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파편화된 기호들이 속도감 있게 다가오게 한다. 파편화된 기호들은 안정적인 서사를 붕괴시킨다. 그것은 모든 것들이 명료한 의미를 잃은 채 스펙터클하게 다가오는 도시적 경험이자 모호한 기억의 상태를 말한다.

정재호의 작품은 서사 보다는, 보고 느끼는 경험에 의존하는 조형언어의 원초적 특징에 충실하다. 특히 대형벽화는 환경의 차원으로 확대되어 작은 그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역동적인 경험을 불러일으킨다. 작가는 장소특정적인 작업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더 큰 만족감을 준다고 말한다. 동시에 부담도 된다. 이러한 작업들은 작품의 상품성을 드높이는 도상의 캐릭터화나 방법의 매뉴얼화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보다는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서사를 이끌어가는 인간이 부재하며, 파편적 도상들이라는 공통점은 발견된다. 도시의 풍경이 아닌, 도시적 체험을 야기하는 그의 작품에서 각이 살아있는 파편적 도상들은 자극과 긴장감을 높인다. 완전한 추상도 아닌 화면에는 알아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도시 중에서도 골목길 같은 주변화된 장소들이 빈번하게 발견된다. 작품의 직간접적인 재료가 되는 사진 역시 멋진 광경보다는 빠르게 다가오고 사라지는 것들이 많다. 완전한 것이 깨져 있다기보다는 기원이 다른 것들이 합쳐지는 복잡한 도상들은 화면 안에서 수직, 수평적으로 공간화 되면서 시각적인 강도를 높여간다. 점차 디지털화 되어가는 환경은 시공간을 더욱 분절시키기 때문에, 공간적 지각과 시간적 기억은 유사한 과정을 따른다. 작품의 생산과 수용 과정은 어느 하나로 고정되기 보다는, 쏟아지는 기표들 속에서 무언가를 고르는 문제가 된다. 글 이선영